

01 교회소식

기도, 전도, 선교하는 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기도, 전도는 물론 세계 선교에 힘쓰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_ 팔복 시리즈 8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며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을 영접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인도받을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 살펴본다.

04 간증

성경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

만민의 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콩고민주공화국 파사 카신디 목사와 16년 된 요실금을 치료받은 박금아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06호 2013년 11월 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 충만함으로 42일간의 기도 행진

GCN 방송을 통해 국내외 1만여 지·협력교회 동참해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인도로 42일간 진행되고 있는 2013년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올해 우리 교회 기도제목 중 하나인 사람의 자유 의지를 꺾는 '권능'(요 11:41~44)의 역사로 부활절, 기관장교육, 하계수련회, 창립 기념 축하행사에 이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월 30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이하 특별 다니엘철야)'가 '근본의 소리'라는 주제로 열려 여느 때보다 감동 속에 자신을 발견하며 불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다.

또한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 교역자와 성도들도 동참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근본의 소리를 체험하고 있다. 산상기도 중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절한 전회기도를 받고 막을 연 특별 다니엘철야는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각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기도로 더욱 뜨겁다. 본교회만 해도 4천여 명이 매일 밤 성전에 모여 9시부터 11시 40분까지(주말에는 11시까지, 금요일은 금요철야예배로 대체) 기도함으로 축복과 응답을 체험한 성도들의 간증이 넘쳐난다.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시간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나'를 더욱 깊이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백선미 집사), "사모함으로 참석했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뤘습니다. 희망 부서로 발령을 받아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생도 오랫동안 매매되지 않던 집이 팔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김진희 집사)

1986년부터 시작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서는 28년 동안 습관을 좇아 매일 밤 9시부

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으며, 교회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1년에 두 차례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로 진행된다. 이번에는 특별한 시상품을 만들어 40일 이상 기도한 성도들을 대 상 으

로 추천을 통해 상 으 로 줄 예정 이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만민 성도들의 전도 열풍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만민 성도들이 전도의 열기로 뜨겁다. 여구역장을 중심으로 평일에는 가가호호 전도하며, 매주 '화요 지역기도회' 후에는 지역 식구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교회 소식지 '만민뉴스'와 함께 따뜻한 커피나 부침개 등 먹거리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밖에 매주 토요일은 지역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만민뉴스를 전하는 한편, 가족 단위로 일가친척을 방문해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간증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정길 집사는 "당회장님 기도로 고엽제 후유증을 치료받은 뒤 감사해서 만민뉴스를 꾸준히 전하고 있다. 전도할수록 강건해지고 천국 소망도 더해진다."며 행복한 마음을 전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던 '네팔 만민 지교회 연합수련회'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7회 네팔 만민 지교회 연합수련회가 수도권 위성도시 중 하나인 박타푸어 지역 나갈곳의 쭈나데비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개최됐다.

첫째 날, 십자가 고난 체험과 '지옥',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영상을 시청한 후 강사 이해천 목사(네팔만민선교센터 담임)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둘째 날에는 체육대회와 캠프파이어가, 셋째 날에는 선교회 모임과 성경퀴즈 대회, 잠자리 체험 등을 통해 참석자들은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됐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디페쉬 와이바 학생은 "좋아하던 세상 노래를 끊고 열심히 기도하니 행복하다.", 크리쉬 그할티 성도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니 영육 간에 축복을 받고 있다."는 등 간증이 넘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10~12)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했기에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습니다. 밝은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이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 사단의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2.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받는 경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절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죄이기 까닭에 단호히 거절했지요. 결국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니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지요. 이 모습을 지켜 본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 사단은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주관해 하나님 자녀들을 핍박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지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이나 지혜가 부족해 핍박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온 집에 충성하지 못해서, 주변에 덕이 되지 못해 욕을 먹거나 어려움을 받는 일도 발생하지요. 가령, 여 성도님이 게을러서 집안 청소나 식사 준비는 해 놓지 않고 교회 일로 바쁘다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집안을 돌보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정작 핍박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해서 그렇다고 착각하지요. 직장에서도 교회 간담면서 남에게 일을 미루고 불성실해 지적이나 책망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핍박받는 것이 나의 잘못이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3.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

1)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 복이나 상급이 될 수 없지만,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복이 되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됩니다.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지요.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마음의 악도 발견해 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맞대응해야 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또한 천국 소망이 가득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2)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소유하는 ‘천국’과, 여덟 번째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하는 ‘천국’은 어떻게 다를까요? 전자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이라면, 후자는 각 사람이 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은 만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으로 나뉘는데, 이중 가장 좋은 천국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은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죄악을 버리며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핍박과 연단을 통해 성결됐으니 더 좋은 천국 처소에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뵈을 수 있습니다.

3)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의를 온전히 이뤘다 해도 모든 핍박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받는 핍박’,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꾼 된 사람들이 받는 핍박이 있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하기까지 충성했지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힘이 없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크게 이뤄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기 위해 중심에 불붙는 듯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외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한 것입니다.

4)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크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다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각종 면류관과 황금 보석 집 등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상급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또한 주를 위해 애매히 고난을 받고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를 보여 주십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만큼 믿음이 더욱 성장해 능력과 권세가 임하며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고 점점 더 큰 권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봄으로 중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눅 22:28~30).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 중에 여덟 번째 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시며 장차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핍박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참되고 영원한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만큼 영생의 축복을 받는 반면 핍박도 견뎌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와 그에 따르는 복은 무엇이며, 왜 예수님께서서는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1.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란 성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와 선, 빛을 좇아 살 때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애매히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빛에 속합니다.



교회 주소는 길

7호선 남구로역

공항

디지털단지 오거리

한신 IT타워 하이랜드 1차

외환은행

E-마트

만민중앙교회

구로단지 우체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안양

재일은행

시흥대로

사당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매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늘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주님의 피 값으로 산 자녀들과 교통을 이루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을 하든 형통함을 받아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고 축복이 넘치며,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창대하게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듣거나 주관을 받으며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이 들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음성들과 달리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들려온다.

과연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주관하고 인도하시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01.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경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다(요 14:26).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다.

가령 누군가가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비진리가 아니라면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달라면 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등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나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을 떠올려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해 말씀 무장이 잘 돼 있는 만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수월하다.

02. 성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다.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마음에 진리가 임한 사람, 죄를 벗고 성결된 사람이라야 한다. 수학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진리로 무장돼 있어야 성령의 음성을 밝히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혹여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진리에 비취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한다.

03.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경우

만일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누구를 구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그대로 순종했다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등 선한 열매를 맺었다면 성령의 주관을 받은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주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뤄지는 것을 친히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라면 크든 작든 성령의 주관을 결코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 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밝히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04.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에 순종해야

예배를 드리거나 불같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 찬양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주관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길이 하나님 뜻인지 알기 위해 기도할 때 마음에 강하게 주관받아 순종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주관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고 행할 바를 주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변개해 불순종한다면 이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작성해서 기도하면 응답받겠다.’는 성령의 주관이 와서 열심히 참석했는데, 작성 기간이 다 되어가도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런저런 생각이 틈타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진리가 마음에 잘 무장되지 않아서 중간에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기도 한다. 가령 ‘건축현금 얼마를 작성해야겠다.’

는 성령의 주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얼마 후 더 큰 축복이 오자 작성한 것은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비록 많은 액수를 드렸다 해도 이는 변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7장에 드리기로 작성한 생축보다 더 좋은 것이 생겨도 바꾸지 말라고 하셨다. 작성한 것은 이미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임의로 바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면 둘 다 드리면 된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할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 순종하면 반드시 영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p>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p> <p>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1.3~11.9</p> <p>November</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의 결여 6-10 • 천국 44-48 • 지옥 1-4 • 위로부터 난 지혜 2-6 • 십자가의 도 19-23 • 공부 잘하는 비결 11 • NEW 새예루살렘 2(창립예배)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과 영 2(이수진 목사) • NEW 영의 세계 2(이화선 목사) • 테스트(이미경 목사) • NEW 생명수 4(신동초 목사) •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신동초 목사) • 생명수(박해상 집사) • 'GCN TV특강'-십자가의 도 5(정구영 목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 • NEW 찬양 드려요 4 • NEW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4 • NEW 향기 4 NEW 우린 하나 1-2 • NEW 플로리스트 4 NEW English 2 • NEW 아름다운 예배 2 • NEW 창립 31주년 축하공연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연합대성회 1 • 페루연합대성회 종합편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p> <p>1577-2073</p> <p>GCN 방송</p>
--	---	---	--	---

“만민의 사역은 성경을 확증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파사 카신디 목사
(콩고민주공화국 부까부 만민교회 담임)

저는 2009년에 열린 ‘정명호 목사 초청 부까부 목회자 세미나 및 손수건 집회’를 앞두고 만민의 사역을 알

게 됐습니다. 당시 다른 목사님들과 성회를 준비하면서 세미나와 집회 홍보 파트를 맡게 됐지요.

부까부 전역을 다니며 홍보 포스터를 부착함으로 집회를 널리 알렸습니다. 또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이재록 목사님의 사역에 관한 비디오를 상영했지요. 집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 일꾼들과 함께하게 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행군하는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사 정명호 목사님(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은 집회에 앞서 이재록 목사님과 그분의 기도를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실 것과 손수건 기도를 통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안 보이던 눈이 보이며 갖가지 질병이 치료될 것을 담대히 말씀하셨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 만일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회를 홍보한 내게 사람들이 돌을 던질 텐데...’ 하며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네 살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며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성경 말씀을 확증하는 성령의 역사를 목도한 저는 만민 지교회로 가입했습니다.

그 후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읽으며 성결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썼지요. 은혜받은 성도들이 전도하니 부흥의 열매도 맺혔습니다. 또 제가 개척해 섬기고 있는 15개 지교회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지요.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믿음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마 11:12)과 믿음의 분량(롬 12:3)에 관해 정명호 목사님이 전해 주심으로 밝히 알게 됐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닮아 성결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었지요.

이재록 목사님은 영적 소경이었던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을 만나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결혼 후 1994년, 전남 광양제철소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광양에 정착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1시간 거리인 예수만민교회(담임 이행엽 목사)를 다니게 됐지요.

남편(조휘군 집사)은 결혼 전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 테이프를 들은 후에는 술과 담배를 끊고 신앙생활이 새로워졌지요.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 남편은 봉고차까지 구입해 차량봉사를 하며 먼 지역에 사는 성도님들의 발이 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둘째 딸을 임신했을 때 의사는 태줄이 태아의 목을 감고 있다며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 믿음대로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초등학교생이던 큰딸(조사랑, 사진 왼쪽)의 발목 위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조화진, 사진 오른쪽)은 당회장님 기도로 시력이 0.2에서 0.9로 회복돼 안경을 벗었으며,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도 깨끗하게 치료받았지요.

서울로 올라와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를 게을리하니 성령 충만함을 잃었지요. 2005년, 저는 ‘더 이상 신앙이 정체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아이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

“15년 된 요실금이 완치되었어요”



와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문제로 인해 2008년에야 상경할 수 있었지요.

저희 가족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다가 가까이에서 인사도 하면서 신앙생활하니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교구의 총무 구역장 사명도 맡아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변화가 더딘 제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래서 올해 1월 2일부터 저녁 금식과 더불어 100일 작정 다니엘절야 기도를 했더니 부활주일을 계기로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이기적이고 걱정 근심 등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졌지요. 이에 힘을 얻은 저는 다시 한 번 6월부터 100일 작정기도에 돌입했습니다.

변화와 치료, 영육간에 축복을 받아

지난 8월 5일, 저는 만민하게수련회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날 저녁 교육 시간에 당회장님께서 해주신 시공을 초월한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난치병인 요실금을 치료받은 것입니다.

둘째 딸 출산 후 생긴 요실금으로 인해 15년 동안 재채기나 출납기를 할 때는 물론, 크게 웃기만 해도 소변이 나왔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 꼴로 화장실에 가야했지요. 이로 인해 수분 섭취를 기피하게 되고 외출마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후에는 평소와 달리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긴 시간 동안 화장실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요실금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4575-1934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8291-7173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동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